



하이트진로, '아이서에이슬' 한정 재출시
하이트진로가 연말을 맞아 '아이서에이슬'을 한정수량 재출시했다. 오리온 '아이서'와 협업한 과일 리큐르 제품으로, 상큼한 레몬 맛에 강력한 짜릿함이 특징이다. 낮은 알코올 도수로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조기 완판 이후 소비자의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을 맞아 소비자 관심에 보답하고자 재출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회적 책임' 내세운 착한기업으로 성장 중인 매일유업

“채널A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응원”

매일유업이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 착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어린이 영양간식과 TV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협업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우유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이 특징이다.

키즈부스트, '금쪽같은 내 새끼'와 맞춘 매일아이스 육아솔루션 카드뉴스 공개 매일유업 후원 '어르신 우유안부' 주목 캠페인 독려 위해 '고마워 선물' 중정도

● 금쪽같은 내 새끼, 키즈부스트로 '트트'

먼저 어린이 영양간식 키즈부스트는 내년 2월까지 채널A 육아 예능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와 손잡고 '우리 아이 성장 부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매주 자사 육아정보 사이트인 매일아이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육아 고민 사례를 토대로 한 육아 솔루션 카드뉴스를 공개한다.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담은 카드뉴스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훈육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화차별 퀴즈 이벤트를 통해 자사 모바일 교환권과 금쪽이 쿠폰 등을 경품으로 준다. 금쪽같은 내 새끼 인스타그램에서도 키즈부스트 증정 댓글 이벤트를 연다.

키즈부스트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담은 간편한 영양간식이다. 하루 1컵만으로 뼈건강을 위한 비타민D 하루 권장량과 칼슘 하루 부족분을 섭취할 수 있다. 여기에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을 하루 권장량 이상 담았고, 모유 구성 성분인 오스테오폰틴과 건강 성분인 효모베타글루칸을 더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회사 측은 "양육자 고객의 육아 고민을 함께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고객이 다양한 육아팁을 얻고 고민을 해결했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유업과 키즈부스트가 돕겠다"고 했다.



매일유업이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 착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키즈부스트가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와 손잡고 진행하는 '우리 아이 성장 부스트 캠페인' 포스터, 우유안부 캠페인 광고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준비한 '고마워 선물' (위부터) 사진제공 | 매일유업

● 우유안부 캠페인, 서울 전 지역 확대

매일유업이 후원하는 우유안부 캠페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도 주목받고 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전달 배달한 우유가 남아있을 경우 관공서나 가족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2003년 옥수동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래로, 최근 서대문구와 협약식을 진행해 19년 만에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현재 수혜 가구 수가 3600여 가구에 달한다.

매일유업은 2016년부터 캠페인 후원사로 동참해 21개 가정배달 대리점과 200여 명 배달원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우유배달을 전담하고 있다. 유제품 제조와 유통에 강점이 있는 만큼, 가정배달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관련 캠페인 광고도 화제다. 6월 칸 국제광고제에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액티베이션 부문과 PR부문에서 각각 은사자상과 동사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근 2022 대한민국광고대상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과 온라인 영상 부문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영상에는 우유안부 캠페인의 실제 수혜자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해 '매일 받는 우유가 큰 위안이 된다', '우유가 올 때 기쁘고 반갑고, 굶은 날씨에도 우유를 배달해줘서 배달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등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우유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안부를 전하는 발상이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국내·외 광고제에서 긍정적 평가를 이어졌다. 분석이다.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개인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1일까지 새롭게 정기후원을 시작하는 후원자에게 '고마워 선물'을 증정한다. 3만9000원 상당의 매일유업 대표 제품과 어르신들의 손글씨 인사 카드로 구성했다. 손글씨 인사 카드에는 '배달원분들,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에 행복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노크 소리로 적적함을 달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등 수혜자 어르신들의 인사가 담겨 있다.

회사 측은 "우유안부 캠페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후원과 대중의 인지가 중요하다"며 "향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유안부 캠페인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알펜시아 리조트, 전년비 12월 예약 15배 상승

평창의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사진)가 스키 시즌을 맞아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 따르면 해외 인바운드 고객의 객실예약이 지난해 16실에서 올해는 무려 9643% 증가한 1559실(12월 6일 기준)로 늘었다. 국내 학생단체 고객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180실에서 올해는 1480실이 예약됐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겨울시즌을 맞아 3일 스키장 '스키700'을 개장했다. 현재 오픈 프로모션에 이어 주말 스페셜 디너 뷔페를 진행하고 연말연시 리조트 방문객을 위한 해돋이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 광명시에 소하검진센터 개원



중앙대광명병원(사진)은 8일 광명시 소하동 광명G타워에 소하검진센터를 개원했다. 대학병원 검진센터로서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인 2579㎡ 규모로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의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다. 추후 검진과 검사를 담당할 의료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가 가능하며 의료진간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위, 대장내시경 등 다양한 검사의 당일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외에 수검자별 RFID 태그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스마트헬스시스템을 구성했다.

중앙대광명병원(사진)은 8일 광명시 소하동 광명G타워에 소하검진센터를 개원했다. 대학병원 검진센터로서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인 2579㎡ 규모로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의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다. 추후 검진과 검사를 담당할 의료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가 가능하며 의료진간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위, 대장내시경 등 다양한 검사의 당일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외에 수검자별 RFID 태그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스마트헬스시스템을 구성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5대 암 검진, 건강보험공단서 비용 지원 첨단 장비·원스톱 의료 서비스 제공 체코



우리나라는 국내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효과를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5대 암 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암은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소화불량, 속이 더부룩한 느낌, 상복부 통증, 체중 감소, 구토 등의 이상 증세를 일으킨다. 만 40세 이상이라면 2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위암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 가족력으로 발병하는 암종이다. 만5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암은 간염바이러스, 음주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이라면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간암 초음파 검사가 권장된다. 만 40세 이상,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각각 유방암,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암, 간암, 유방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90%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이하는 무료 검진이 가능하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공단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5대 암 검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지정기관으로 체계적인 5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지, 첨단 검진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진단부터 치료 및 관리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권익구 더나은내과 이지경 원장



LF, 연말 맞아 더 현대·한옥에서 팝업스토어 오픈

현장서 제품 판매 NO...고객 경험 집중

LF가 연말 시즌을 맞아 팝업스토어를 늘리고 있다.

먼저 LF몰의 여성 패션 자체브랜드(PB) 스탠다이어일은 14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대서를 지하 2층에서 팝업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적인 분위기의 포인트 색상과 아이코닉한 패턴, 조형물 등으로 팝업스토어 내부를 꾸미고 다채로운 꽃 장식을 구성했다. 니트컬렉션 등 의류와 함께 액세서리 브랜드 프루타와 협업한 제품을 선보였다.

LF 히스 헤지스는 내년 1월 15일까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갤러리 양

당에서 쇼룸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히스 헤지스의 집'으로 테마를 정하고,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로 공간을 꾸몄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와 감성적인 액자를 배치해 여유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고객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가을·겨울 시즌 주요 컬렉션을 사이즈별로 구비해 고객이 자유롭게 입어보고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했다. 제품 구매는 LF몰에서 가능하며, 현장 방문 고객에게 LF몰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SPC "땀글 하나로 자립준비청년 첫 살림 지원"

초록우산재단과 '해피쉬어 캠페인'

SPC가 31일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해피쉬어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피업에 소개된 사연에 고객이 '응원 댓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SNS 공유 시 SPC가 전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부하는 온라인 사회공헌활동이다.

1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하며, 목표 달성 시 총 2000만 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의 가전, 가구, 생필품 등 첫 살림 지원비로 사용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참여는 해피업 내 배너 또는 해피스토리 '달콤한동행' 랩에서 가능하며, 참여자 200명에게 해피콘(모바일 쿠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회사 측은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지원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

며 "향후 도움이 필요할 곳에 귀 기울이고 지원하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SPC는 최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나누는 '현혈 송년회'를 열었다. 2011년부터 12년째 매년 진행해온 SPC만의 특별한 연말 행사로,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지원을 위한 '현혈증 모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까지 총 3882장의 현혈증을 기부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 수는 1200여 명에 달한다.

정정욱 기자